

134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(1) 검정색 날염물의 색번짐

□ 검정색 날염물의 색번짐(블리딩, bleeding)

- 이탈리아 상표의 여성 재킷에서 땀 오염이 발견되어 습식클리닝을 했는데, 특별히 검정색 프린트 부분의 색이 번짐.

해설)

- 일반적으로 날염(프린트)의 경우 적·청·황 등의 유채색은 1회 염색이지만, 특히 색번짐이 발생한 검정무늬 부분은 겹친 프린트를 시행한 것이 많음.



- 진한 검정색을 내기 위해서 겹침 프린트에 의한 다량의 염료를 사용하나, 일부 염료가 염색되지 않고, 섬유표면에만 염착되어 있던 것이라 볼 수 있음.
- 색번짐은 블리드(bleed)라 불리는 현상으로 염색의 후속 공정으로 섬유 위에 불안정한 상태로 남은 염료의 퇴색을 방지하는 fixing, 또 염색 불량인 염료를 씻어내는 soaping을 실시하는데, 이것이 불충분했을 때 발생됨.
- 또 습식클리닝 때 수축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자연건조하는 과정에서 모세관 현

상에 의해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색번짐이 발생하기 쉬움. 이 경우 오히려 단시간의 텀블러 건조가 색번짐의 위험을 피할 수 있음.

- 오히려 다소 줄어들고 퇴색은 있을지도 모르지만, 마르셀 비누에 의한 고온세탁(제품 소핑)에 의해서 색번짐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경우도 많음.
- 이탈리아 등 여름철에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는 겉옷에 땀이 젖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지만,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는 땀 오염을 고려한 제품 생산이 요구됨.

♠ 자료출처 : 송종욱 역,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, 한국세탁업중앙회, 2011
www.textilecare.kr